

나비 도감

독후활동지

제25회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수상작





나비도감

최현진 글 · 모루토리 그림 | 문학동네
초등 4학년 이상

책 소개

누나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걸 좋아하고, 게임의 범인을 귀신같이 찾아내고, 왼쪽 청력이 약한 날 위해 내 왼편에서 주었다. 하지만 이제 누나는 마니또를 위해 준비한 선물을 전하지 못하고, 일 년 전 나와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한다. 누나는 죽었으니까. 그런데…… 누나가 아끼던 카우보이모자에서 누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산. 내 노트를 펼쳐 봐.” 나는 누나의 투두리스트가 적힌 노트를 가방에 넣고, 카우보이모자를 머리에 쓰고, 문을 나섰다. 이제부터 누나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야 하니까.

심사평

나비는 어떻게 그 여린 날개로 중력을 이기고 날아오를 수 있는 걸까?
나는 죽음을, 특히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한 이별을 축제로 받아들일 만큼 강하지 않지만,
약한 우리'들'은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른다. _송미경(동화작가) 심사평에서

작가의 말

오랫동안 죽음이라는 것을 완전한 이별로 생각해 왔던 것 같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사랑한 것들은 어떤 형태나 순간으로 꼭 되돌아온다는 것을. 그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을 이루어 가는 것도 애도라는 것을. _최현진

활동1 누나를 위해서 할 일

산이는 누나의 카우보이모자를 쓰고, 누나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나씩 해 나갑니다.

산이의 투두리스트가 무엇인지, 빈칸에 들어갈 말을 채워 보세요.

산이가 임무를 하나씩 완수할 때마다,

메아리는 동생에게 어떤 말을 건넬까요? 상상해서 써 보세요.

• 고양이 이름 에게 누나가 사 둔 우유 주기



• 마니또 이름 에게 선물 전해 주기



• 누나의 반 친구들에게 명칭 게임 벌인 밝히기



• 도서관에서 빌려 온 책 제목 반납하기



• 장소 에서 누나의 열세 살 생일 파티 열기





활동2 낱말 뜻 익히기

이 책을 읽을 때 어려운 낱말이 있었나요? 낱말과 그 뜻을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그런 뒤에 빈칸을 채워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철칙

•

• 잇따라 여러 번 되풀이하여

싱글

•

• 사물이나 능력, 책임 따위가 실제 작용할 수 있는 범위

한계

•

• 바꾸거나 어길 수 없는 중요한 법칙

기척

•

• 높은 곳에서 아래로 향하여 내려옴

연거푸

•

• 눈과 입을 슬며시 움직이며 소리 없이 정답게 웃는 모양

하강

•

• 누가 있는 줄을 짐작하여 알 만한 소리나 기색

책방 골목을 빠져나와 학교 쪽으로 향했다. 돌아보지 않아도 엄마의 _____ 이 느껴졌다.

은우가 _____ 문자를 보냈다.

청력이 _____ 에 이르면 스스로 볼륨을 줄인단다.

잘 날던 연이 _____ 하면서 순식간에 누나랑 내 앞으로 떨어졌다.

자기가 마신 컵은 자기가 씻는 게 우리 집의 _____ 이다.

은우의 눈이 커지면서 나를 향해 _____ 웃었다.



활동3 나쁜 댓글은 싫어요

메아리의 사고가 뉴스에 나자,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이 달려요.

정민 이모는 “그런 거 보지 마.”라고 했지만 산이는 이미 열 번도 넘게 보았습니다.
산이를 위해서 조롱하고 상처를 주는 나쁜 댓글 대신,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하는 댓글을 써 볼까요?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와 워터파크에 갔던 초등학교 6학년 A양이
26미터 높이의 워터슬라이드가 붕괴되면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얼마나 힘드실까요.

 등록 취소

 등록 취소



활동4 나라면 이렇게

책에 빠져 읽다 보면 마치 내가 주인공이 된 것 같습니다.
아래의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적어 보세요.



- ▶ 산이는 혼자서 횡단보도 건너는 것을 어려워해요. 다른 사람에게는 쉬운데, 나에게는 어렵거나 두려운 일이 있나요? 그 일을 해야 할 때, 내가 터득한 방식이 있나요?

- ▶ 한별이는 산이에게 ‘돌멩이를 쥐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진다’며 돌멩이의 새로운 쓸모를 알려 줍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어떤 물건의 새로운 쓸모가 있나요?



- ▶ 산이의 엄마는 워터파크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요. 엄마가 만든 피켓에는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짐작하여 써 보세요.

**워터파크 안전사고
누구의 책임인가요?**

활동 5 다시 쓰는 대화

산이는 누나와의 마지막 대화를 후회하며 머릿속에서 그때 일을 새롭게 구성해요.
최근 내가 나누었던 대화 중에서 후회되는 대화를 새롭게 구성해 보세요.

“누나.”
“왜?”
“오랜만에 수영장 가서 좋아?”
“어.”
“누나.”
“왜 또!”
“나도 좋다고. 누나가 워터파크에 가서. 그동안 나 때문에 못 갔잖아. 오늘은 가서 실컷 놀다가 와.”
“진심이나?”
“응. 근데 있잖아. 워터슬라이드는 타지 마. 위험한 것 같아. 알았지?”
“알았어! 안 탈게. 나 다녀온다!”

— 본문 127쪽~128쪽

▼ 내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_____ 와(과)의 대화, 다시 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



나



나


